

〈일연과 삼국유사〉 독후감  
-삼국유사의 가치와 오늘 날 불교의 방향성-

2020110013 김시원

목차〉

- 삼국유사의 기본 구성 및 내용분석
- 일연에 대하여
-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가치
- 삼국유사에 나타난 선
- 주관적 감상
- 삼국유사로 보는 오늘 날 불교의 한계

**삼국유사의 기본 구성 및 내용분석**

〈삼국유사〉는 5권 2책으로 구성된 활자본이다. 1281년에서 1283년에 편찬됐다고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아니다. 고려시대의 각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완본은 이계복에 의해 1512년에 만들어진 정덕본이 있고, 그 이전의 영본이 있었다.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 고대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헌이며 〈삼국사기〉가 여러 사관이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정사인 데 반해, 〈삼국유사〉는 일연이 혼자 쓴 야사이기에 〈삼국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고대 자료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고조선에 대한 서술은 한국의 시초를 보여주며, 단군신화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준다. 그 외에도 많은 신화가 수록된 설화문학서라고도 하며, 향찰로 표기된 신라의 향가들은 한국 고대 문학 혹은 예술서로써도 높은 가치를 보인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삼국유사〉를 선택하겠다”고 평했을 정도로 〈삼국유사〉의 가치는 오늘 날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남았다.

〈삼국유사〉의 기본 구성은 이렇다. 권1에 〈왕력〉과 제1〈기이〉, 권2에는 제2〈기이〉를 권3에 제3〈흥법〉과 제4〈탐상〉, 권4에 제5〈의해〉, 권5에 제6〈감통〉 마지막으로 권6에 제7〈피은〉과 제8의 〈효선〉을 수록하고 있다. 〈왕력〉은 연표로, 난을 다섯으로 갈라서 위는 중국의 연대로 하여 밑은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락국의 순서로, 뒤에는 후삼국의 연대를 표시했는데 〈삼국사기〉와 달리 왕의 출생이나 즉위 등 중요한 기록은 간단하게 서술하고 저자의 의견도 덧붙였다. 〈기이〉편은 제1과 제2로 나뉘는데 제1에서는 고조선과 삼한과 부여, 고구려 등 여러 국가의 성립과 멸망과 신화, 전설 등을 유사 36편을 기록했고, 제2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문무왕에서부터 신라의 멸망군주인 경순왕까지의 기록과 백제와 후백제, 가락국에 대한 유사 25편 다루고 있다. 〈흥법〉에서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불교 전래와 고승에 대한 서술을 7편으로, 〈탐상〉에서는 탐이나 불

상 등에 얽힌 유래에 대한 기록을 30편에 나눠서 각각 실었다. <의해>는 신라 때 고승들의 행적으로 14편의 설화와, <신주>에서는 밀교의 이적과 승려들의 전기들, <감통>에서는 부처와의 영적 갈등을 빚은 신도들, <피은>에서는 높은 경지의 은둔 승려들의 이적을 담았다. 그리고 <효선>에서는 효행과 선행에 대한 5편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 일연에 대하여

일연은 고려후기의 고승으로 법명은 견명이다. 1214년의 지금의 광주 지방의 무량사에서 학문을 했으며, 1219년 설악산 진전사로 출가하여 대웅 스님의 제자가 되어 구족계를 받았다.

선문을 방문하며 수행한 결과, 많은 이들의 추대로 구산문사선의 최고가 되었다. 1236년 10월 몽고의 침입이 일어나자 문수의 문수오자주를 염하며 감응을 빌었고, 문수가 현신하여 “무주암에 주석하라.” 하였기에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음 해에 묘문암에 주석하게 됐으며, ‘중생의 세계는 줄지도 않고 부처의 세계도 늘지 않는다.’ 라는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간화선에 심취했음을 보인다.

1268년에 조정에서 선종과 교종의 고승 100명을 초청해서 해운사에서 대장낙성회향 법회를 열었는데, 일연이 주관했다. 1277년부터 충렬왕에 따라 운문사에서 1281년까지 살면서 선풍을 일으켰다. 이때 <삼국유사>를 집필한 것으로 추측되며, 1282년에 충렬왕으로 인해 대전에서 선을 설법하고 광명사에서 대접을 받았다. 그해 3월에 국존으로 책봉됐고, 4월에는 왕의 거처에서 구의례를 받았으나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귀향했다. 1289년에 입적했고, 보각국사비명이라는 비의 명칭을 갖고 있다.

##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가치

무신란 이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각과 반성을 통해 그 모순을 극복할 정신적 기준을 위해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배경이 고려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던 것에서 그 시작이 있다. <삼국유사> 보다 앞선 고려문화에 대한 정사 <삼국사기>는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유교적 정치사관이 녹아있었다. 유교사관은 고려 후기까지 관찬 사서들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의 회피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몽고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이념만으로 사회 모순을 극복한다는 문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 때 정신 측면을 강조하는 정신사관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반영한 것이 <삼국유사>이다. 일연은 고승이었기에 역사를 불교 중심으로 서술했다. 당시 고려 사회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불교 사상이 만연했기에 일반적 의식으로 통용됐다.

일연은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상기하고자 한다. 정사라고 인식하는 <삼국사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수록한 유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고조선에 대한 서술을 통해 당시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고려의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민족임을 알리며 만연했던 불교 신앙으로 민족감을 고취시켰다.

일연의 전승 사료들은 당시 서민들에게 큰 가치를 가졌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성인이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데 있어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는 바였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나려 함에 부명을 받고 도록을 받아 반드시 남과 다른 점이 있는 연후에야 능히 대 변을 타고 대기를 쥐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인데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겠는가.’ 이는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신이한 일연의 역사인식을 볼 수 있다.

## 삼국유사에 나타난 선

일연스님은 간화선에 심취하여 ‘생계불감 불계불증’의 화두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내가 오늘 삼계가 허깨비나 꿈과 같음을 알았으며 대지에 가느다란 터럭 만큼의 걸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도 말했다. 일연은 입적하기 전에 장문의 세 가지 선 문답을 남겼는데, 첫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 떨어진 것이 얼마인가?’ 그리고 다음은 이러했다. ‘분명히 목전에 있느니라.’ 마지막은 이렇다. ‘다음날 돌아와서 다시 그대들과 더불어 한 바탕 흥겹게 놀아보세.’ 이렇듯 일연이 간화선에 깊이 젖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연은 당대 선사상을 융합하고 조화하는 의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교학에도 관심이 있었다. 문수보살의 현현에 감응을 얻고 관음 진언의 공덕을 강조한 것은 일연이 복합적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화두에 대한 답을 봤을 때 일연 스님은 ‘공’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삼국유사〉의 설화에서는 ‘공’에 대한 서술을 어느정도 볼 수 있다. 일연 스님이 꿈에서 보살을 만났던 것 처럼 ‘꿈’을 기이한 요소이자 매개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지엄이 꿈에서 광명을 만난 것이 예시이다. 설화 중 하나인 조신의 꿈에서는 ‘일장춘몽’과 ‘인생무상’의 극단적 묘사를 통해 인생의 헛됨과 공을 보여줬다.

〈삼국유사〉는 선종계 계통의 서술은 아니지만 선종의 일파인 조동종의 오위설에 대해 주를 보완한 중편조동오위에서 일연의 수선적 면모를 볼 수 있다.

## 주관적 감상

‘일연과 삼국유사’를 읽기 전에, 어느 책을 읽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읽기 전에 주목한 부분을 생각했다. 우선 ‘기대 효과가 충족이 될 것 인가?’에 주목했다. 삼국유사는 큰 가치가 있는 책이기에 어떤 것에 기대를 하면 좋을까하다가 기대 효과를 크게 네 가지로 잡았다. 첫 번째는 역사적 의의다. 잃어버린 2500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고조선의 가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어 국민성의 증진이 아무래도 삼국유사의 목적이었기에 기대 효과를 걸었다. 후속되는 기대 효과로는 문학사적, 불교적 가치이다. 이 네 가지의 기대 효과가 다 충족 되었는지가 목적 중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가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한 역사서인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삼국유사는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거론될 정도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날 완전히 통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했다. 이에 대한 답은 미리 말하자면, 거의 ‘완벽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저자 정병삼 교수는 ‘이 작은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일연선사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삼국유사의 참맛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라고 머릿말에 말했다. 이는 즉, 삼국유사에 대한 심화적 고찰이라거나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삼국유사를 읽어 본 적이 없는 등의 초심자들에게 적합한 책이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 책 만으로 완벽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조선에 대한 서술이나 설화, 서사시 등의 여러 가치들 (신라 중심의 서술이나 귀족 중심의 서술에 대한 내용이 많기에 그 외의 국가나 계급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역사서를 오로지 삼국유사만을 읽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역사서들과 함께 융합하여 우리 나라 역사를 알아간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만한 책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부분은 가장 궁극적 목표인 ‘삼국유사를 통해 현대의 불교 문제(청년들의 관심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후술 될 내용은 책을 읽은 후의 감상이다.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흔들리던 국력과 시민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저술했던 <삼국유사>는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오늘 날에도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삼국유사>가 크게 문학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적 가치에는 ‘교훈’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주된 주제에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에, 우리는 과거를 잘 들여다보고 현재에 제시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며,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현재에 자긍심을 갖거나 반성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한 역사서로 <삼국유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에 지속된 몽고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던 고려인들이 이 책을 통해 신앙심과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었던 것 처럼 오늘 날까지의 우리들은 깊은 우리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조선 신화를 통해 오랜 역사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한 고승들과 효를 행한 이들의 설화는 오늘 날 교훈서로 삼기에 충분하다. 효를 표현한 <효선>편에서 자신의 다리를 베어 부모를 공양했다는 이야기는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이 비슷한 이유로 다리를 베려고 했지만 너무 아파서 포기했다던 일화가 생각났다. 위인으로 꼽히는 김구 선생조차 마다한 이 일을 고려 시대의 이들은 해냈었다는 부분에서 고려시대에 유교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어느정도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적 가치는 또한 ‘예술’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장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짧고 긴 서사시가 그 핵심이다. <흥법>편의 3-4 ‘법흥왕이 불법을 일으키고 이차돈이 몸을 바치다’에서는 이차돈 순교와 법흥왕의 대통사 건립 서사가 끝난 후 다음의 시가 이어진다.

‘성인의 지혜는 만세를 위하건만 구구한 여론은 사소한 것 속이네 법륜이 금륜을 좇아 구르니 태평성세가 불교로 인해 열렸구나’ 이는 법흥왕에 대한 찬사를 서사시로 표현함

으로써 왕의 해안과 불교의 흥함을 알린다. 그리고 바로 ‘의를 좇아 목숨을 버림도 놀라운 일인데 하늘꽃과 흰 젖은 더욱 다정하여라 어느덧 한 칼에 몸은 죽었으나 절마다 종 소리는 서울을 뒤흔든다’ 는 이차돈에 대한 찬사를 이른다. 국가와 왕을 위해 희생한 충신 이차돈의 의로움을 ‘하늘꽃과 흰 젖’이라는 기적적이며 순수한 아름다움을 나타냄으로써 이차돈을 더욱 아름답게 찬탄한다. 시 외에도 소설 문헌적으로도 예술 가치를 현대까지 볼 수 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로 시작하는 구지가는 수로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신화적 부분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삼국유사>가 단순한 역사서나 종교서적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상>편의 ‘4-19 낙산의 두 위대한 성인’에서는 ‘조신의 꿈’이라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신이 이미 결혼한 김씨를 끝없이 사랑하여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 속에서 김씨와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많이 낳고 살지만 가난에 못이겨 이별을 받고 모순적이게도 처음 고백을 받을 때만큼이나 기뻐하다 꿈에서 깨다. 다 헛됨을 깨달은 조신이 출가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김만중의 ‘구운몽’과 비슷한 서적으로 거론되며 큰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다 불교를 꿈이라는 신비한 것에 녹여서 일장춘몽의 가치를 일러준다. 다시 조신의 꿈을 읽으며 든 생각은, 오늘 날에도 고등학생 및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불교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접근하기 쉬운 내용에, 요즘 청년들이 취하고자 하는 애육과 탐욕에 대해 헛됨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조신의 꿈을 읽고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고자 마음이 들기도 했었다. 이외에도 <삼국유사>는 선화공주 설화 등 다양하게 전승된 이야기들을 알 수 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칠 때 ‘마늘 많이 먹어야 사람된다 ~’ 는 삼국유사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문학적 가치 만큼 드러나는 것은 불교적 가치다. 의상 대사, 자장 율사 등 우리나라 불교사에 이름을 새긴 스님들의 이야기 뿐 아니라 불상이나 탑에서 나아가 석굴, 상원사의 건축 과정과 의의, 혹은 신통력 등 또한 서술하여 불교의 신비로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삼국유사를 이번에 처음 읽어보게 됐는데, 보살의 현현이나 미래예지 등의 부분에서 베다 경전이 생각났다. 리그 베다의 대표적인 서사시인 ‘라마야나’ 나 ‘마하바라타’에서도 위슈누 신이 아바타로 현현하여 선택받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옛 불교는 신화적 요소를 자극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그런 느낌이 오늘 날에도 강조된다면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삼국유사로 보는 오늘 날 불교의 한계와 해결방안

<삼국유사>는 일연이 주로 거주했던 영남지방, 즉 당시의 신라였던 곳으로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 위주의 서술이 주가 됐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민들의 사기 상승과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해 저서가 만들어진데 반해 일연이 왕실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에서도 모순점을 찾을 수 있다. 일연은 고려 후기

이후에 기층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 사회 전반에 일반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에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수록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개 불교나 유교적으로 연관이 있고, 권력과 관련된 서술이 주다. 물론 일반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연과 삼국유사’ 책에서 보면, 정병삼 교수는 ‘일연은 왕실과의 연결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강도나 개경에서 활동하고 … 이는 서민들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그들의 힘을 복돋우고자 신앙심을 열렬히 고취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적이기도 하다.’ 라고 평했다. 또한 현대 사람들이 이를 읽고 많은 것을 느끼기에는 시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용수 스님이 부처님의 연기를 당시 시대에 맞춰 재해석 한 중관사상처럼 오늘 날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정병삼 교수가 쓰신 <일연과 삼국유사>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 확실한 삼국유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내용을 축약했기에 전달이 와닿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

<삼국유사>를 떠나 오늘 날 불교가 전만큼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다면, 삼국유사는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데에 반해 인도의 리그베다나 우파니샤드는 더 통용적으로 읽히는 데에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화적 내용 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본 불교와도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다. 일본 불교는 젊은 이들도 ‘하츠모우데’를 위해 꼭 절에 가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없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불교에 젊은이들이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임제선종의 대가인 스즈키 다이세츠는 미국에 선을 전파했었다. 전후상황으로 인해 마약과 재즈에 찌들어 있던 미국 청년들은 선을 통해 극복을 했고 그렇게 미국에서 불교가 부흥하게 됐다. 그 부분을 미루어보아 오늘 날 우리 청년들에게 불교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삶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후 시대라는 극단적 상황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우울해하는 청년들이 많다. 앞서 말한 문학사적 가치나 불교적 가치를 통해 <삼국유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스즈키 다이세츠의 ‘우리는 살아갈 때는 유교이고, 죽을 때는 불교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삼국사기는 유교 사관의 정치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난 서적이었다. 삼국유사는 150년 이후에 발생했음에도 어쩌면 삼국사기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칭송받기도 한다. 삼국유사는 불교적 가치가 담겨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결국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불교적 철학을 추구하게 될 범부 중생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어쩌면 삼국유사가 삼국사기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기도 하는 것은 ‘죽을 때는 불교이다.’ 라는 말을 몸소 깨닫게 된 이들을 대표한 스즈키의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